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Music Schedules of KDC

한 경 신(Kyungshin Hahn)**

〈 목 차 〉

I. 서론	IV. KDC5 679 한국음악 분류의 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세목의 1차분류 분석
2. 선행연구	2. 세목의 2·3차분류 분석
II. 한국음악의 체계	V. KDC5 679 한국음악 분류의 개선방안
III. KDC 한국음악분야 전개의 변천	VI.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에서 특히 재전개된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음악의 지식체계에 대해 정리한 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부터 제5판까지의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에 대해 세목의 1차분류와 2·3차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분류항목명의 일관성, 다양한 음악자료의 수용, 한국음악학 및 작곡분야의 수용, 적절한 조기표 사용, 영어와 한자명의 병기, 색인의 누락 및 오류보완 등이다.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분류, 국악분류, 한국전통음악분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rrangement of 679 Korean music schedules in the fifth edition of KDC and to propose improvements of that problem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theoretical knowledge background of Korean music is examined first. Then, the development of 679 Korean music section and subsection from first edition to the fifth edition of KDC were examined. And the expansion aspects and their problems of 679 Korean music of the fifth edition of KDC were analyzed and some suggestions to solve that problems were proposed.

Keywords: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Korean music classification,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ification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ks0330@hannam.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한국음악(국악)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¹⁾ 즉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전통 음악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광의의 한국음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한국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작곡된 모든 활동까지를 의미한다.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개설되고, 1970년대 이후 전례없는 한국학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한국음악의 활동과 연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1년 국악 FM방송국의 개국은 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음악자료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에 대한 수요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음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색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체계 문제는 아직도 학문의 발전 및 자료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보편타당성을 갖는 분류시스템 연구는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이용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2009)(이하 KDC5)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자료 분류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하는²⁾ 전향적인 목적하에 만들어진 분류표이다. 따라서 KDC5는 한글판표기 등 몇가지의 기준하에 많은 공개공청회를 비롯한 지면에 의한 공청회,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예술부문 중 음악 및 한국음악의 개정을 위해서는 각 전문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또한 KDC5는 한국음악분야의 재전개 및 한국학 관련분야의 재정리 등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전판인 KDC 제4판의 '679 국악'은 제5판에서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분류항목이 변경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류전개 역시 한국음악 및 음악학 그리고 다양한 한국음악 자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음악과 음악자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한국음악분류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의 표준분류표인 KDC의 '한국음악(679)' 분류가 다양한 한국음악 자료를 폭넓게 수용하고 한국음악전문지식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분류전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의 지식체계를 정리하고, 둘째, KDC에서의 한국음악분야 전개의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인용 2012.10.17].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표, 제5판, 제1권(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vii.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셋째, 현재 사용 중인 KDC5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중 한국음악의 전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KDC의 새로운 개정판이 될 제6판의 한국음악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표준분류표 KDC를 통해 한국음악분류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1996년 KDC 제4판 발행이후 '679 국악(國樂)'분야의 분류전개 및 '한국음악'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한경신(1998)을 비롯한 장혜원(2002), 김상진·이창수(2003), 박진선(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중 박진선의 연구는 음악전공 입장에서 이루어진 분류연구이다.

한경신은³⁾ 오늘날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수용하면서 학문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갖는 한국음악분류표를 제시하고자 KDC 제4판 '679국악' 분야를 비롯한 각종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들을 분석한 후, 한국음악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문제점을 파악, 새로운 한국음악분야의 분류표(안)를 전개하였다.

장혜원은⁴⁾ KDC 제4판 '국악 679' 분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새로운 분류표를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국악의 이론적배경을 토대로 동양학 관련 및 국악관련 각종 문헌분류표에서 민족음악의 전개상황과 전개상의 문제점을 분석, 그 결과 국악자료의 새로운 분류전개표(안)를 제시하였다.

김상진·이창수는⁵⁾ 인터넷사이트의 음악분야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음악장르별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기존의 주요 문헌분류표들의 음악분야 전개와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의 음악장르 계층구조를 분석한 후, 새로운 인터넷자원의 음악분야 장르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국악(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전개도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박진선은⁶⁾ 특히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DC 음악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도서관 실정에 가장 적합한 음악분류표를 제안하고자, KDC·NDC·중도법(중국도서관 도서분류법)·DDC·LCC 등의 음악분야의 전개를 분석하여 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전개(안)를 제시하였다. 이 중 DDC에 전개되지 않은 국악분야는 마지막 목인 789에 전개하였다.

3)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6), pp. 5-34.

4) 장혜원, KDC 4판 『국악 679』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5) 김상진, 이창수, "음악분야 인터넷자원의 장르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경북대학교), 제15집(2003), pp. 135-183.

6) 박진선, 음악문헌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7).

이상의 모든 연구는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한국음악에 관한 분류전개(안)를 3차분류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두 KDC 제4판의 '679 국악' 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KDC 제5판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의 분류전개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한국음악의 체계

한국음악(Korean music)은 한국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독특한 음악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한국민족이 만든 음악으로, 대체로 國樂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음악이란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오늘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우리민족의 음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⁷⁾

한국음악의 기원은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음악을 비롯한 모든 음악은 원래 독립적인 예술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주술·마술·노동·종교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존속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역사는 대체로 역대왕조에 의한 시대구분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송방송은⁸⁾ 한국음악사에 대해 한국민족이 이루어 놓은 음악활동의 역사로서 그 특징과 양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7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역대 왕조에 의한 시대구분	송방송에 의한 시대구분
1. 삼국시대 이전 2. 삼국시대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전기 (임진왜란 전) 6. 조선후기 (임진왜란 이후)	1. 향악의 형성과 발전시대 (상고시대-668년) 2. 향악의 전성시대 (668-935년) 3. 당악·아악의 수용시대 (935-1392년) 4. 아악의 정비시대 (1392-1592년) 5.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 (1592-1894년) 6. 양악의 수용시대 (1894-1945년) 7. 민족음악의 모색시대

<표 1>에서의 송방송에 의한 시대구분에 따라 한국음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향악의 형성과 발전시대는 한민족음악이 형성·발전된 시기로, 한민족의 형성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음악활동의 시작부터 삼국이 통일되기까지의 성악·기악·무용이 종합예술형태에서 점차 독립된 예술형태로 분리되기 이전까지이다. 둘째, 향악의 전성시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 고구려와 백제의 음

7) 한국음악사전(서울 : 대한민국 예술원, 1985), p.414.

8) 송방송,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시론," 민족문화논총, 제5집(1983), pp.181-182.

악문화를 흡수하여 통합된 한민족의 음악 즉 향악의 절정을 이룬때부터 당악의 전래로 향악과 당악이 병존한 시기이다. 셋째, 당악·아악의 수용시대는 대륙음악의 수용시대로서 통일신라시대 후반 뿌리를 내린 당악의 성장과 12세기 초 아악이 전래되어 발전된 시기이다. 넷째, 아악의 정비시대는 새로운 기보법의 하나인 정간보의 창안과 더불어 많은 악곡이 창제된 시기이다. 다섯째,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는 당시 전승되던 향악·당악·아악의 전통은 겨우 현상유지 상태 였던 반면, 오늘날 전통음악에서 다루는 여러 장르를 포함한 민속악의 등장과 정악이 발달한 시기이다. 여섯째, 양악의 수용시대는 서양음악의 등장과 수용시기로서 양악대의 출현과 이에 따른 국악의 급진적인 위축 시기이다. 일곱째, 민족음악의 모색시대는 한국음악의 방향모색시대로 해방이후의 한국음악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 및 보급과 더불어 서양음악과의 공존 하에 민족음악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한국음악의 체계 및 학문분류에 대한 연구는 역사서 및 이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이 중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한국국악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한국음악연구』 1992년호는 이 주제를 다룬 특집호이다.⁹⁾

한국음악의 체계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주로 3분법과 2분법으로 분류되어 왔다. 조선조 세종 때 편찬된 『高麗史 樂志』에서는 고려시대의 음악을 雅樂·唐樂·俗樂의 3분법으로 분류하였는데, 『樂學軌範』 권6,7,8에 와서는 俗樂이 鄉樂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내용은 동일한 3분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樂學軌範』 권2에서는 雅樂陳設圖說과 俗樂陳設圖說로 나뉘어 아악과 속악의 2분법 체계로 분류하였다. 이후의 『增補文獻備考』는 이 2분법에 따라 먼저 아부(정악)와 속부(민속악)로 분류한 후, 아부를 다시 아악·당악·향악으로 분류함으로써 3분법에 민속악 부분이 추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민족에 의한 모든 음악활동으로서의 한국음악의 체계는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과 함께 오늘날 우리민족에 의한 양악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은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이 동반되는 학문이며 한국음악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음악은 한국음악 이론과 실천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한국음악 이론은 모든 이론적 연구 및 활동으로 한국음악학이라 불리운다. 한국음악학은 서구의 음악학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전통음악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학문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여러 음악학자들에¹⁰⁾ 의한 한국음악학의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세계음악 내에서 새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학은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음악학의 3대 영역, 즉 역사음악학·체계음악학·응용음악학 및 이에 따른 각 분과학에 대한 모든 영역이 포함되면서

9) 『한국음악연구』 1992년호에 실린 한국음악 분류에 관한 논문에는 백대웅의 “전통음악의 시대적분류와 공간적분류,” 신대철의 “우리음악분류를 위한 새로운 시안,” 이보형의 “문화적 측면으로 본 한국 전통음악의 분류방법 서설,” 최종민의 “현행 국악개설서를 통해 본 분류방법론의 문제,” 전인평의 “우리 음악 분류법의 역사적 변천” 등이 있다.

10) 송방송(1980, 1989), 전보성(1983), 홍정수(1992) 등.

한국음악학의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개발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음악의 실천부분은 창작, 즉 작곡과 연주로 구분된다. 이 중 연주는 표현매체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중 악기에 의해 연주되는 기악은 악기라는 매체에 육체의 일부가 작용함으로써 음량·음색·음역에서 성악보다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다. 한국음악에서 사용되는 국악기는 시대에 따라 서역과 중국의 악기들이 수용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조선시대에는 『樂學軌範』에 鄉樂·唐樂·雅樂의 연주에 쓰인 악기가 도설 되었는데, 악기가 쓰이는 목적에 따른 3부 66종의 악기분류가 이루어졌다. 이후 『增補文獻備考』에서는 중국의 악기분류법을 도입하여 악기재료에 의한 8부 61종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후에 『한국국악기도설』과 『한국악기대관』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이상의 국악기 분류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서양의 연주법에 의한 3분류법과 Hornbostel-Sachs의 발음원리에 의한 4분류법과는 아주 다른 분류방법이다. 그러나 세계음악에서의 한국음악의 기악을 위한 악기분류를 위해 이들 분류법을 채택하여 국악기를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 분류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악기 분류

樂學軌範	增補文獻備考	3분류법	Hornbostel - Sachs 분류법
1. 雅部樂器	1. 金雅部	1. 관악기	1. Chordophone (鉉鳴樂器 : 현울림)
2. 唐部樂器	2. 石雅部	2. 현악기	2. aerophone (氣鳴樂器 : 공기울림)
3. 鄉部樂器	3. 絲雅部	1) 擦絃	3. idiophone (體鳴樂器 : 몸울림)
	4. 竹雅部	2) 撥絃	
	5. 匏雅部	3) 打絃	
	6. 土雅部	3. 타악기	4. membranophone (膜鳴樂器 : 막울림)
	7. 革雅部	1) 有律	
	8. 木雅部	2) 無律	

국악기의 편성법은 재래의 궁정음악인 雅樂에만 국한된 것으로 고려·조선시대에 많은 변천이 있었다. 1910년 이후 궁중의 각종 의식에 사용되던 연주형태는 무대음악으로 형성되면서 편성방법 및 편성법에 따른 용어도 달라지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관현악단의 편성과 새로운 창작음악양식이 발생하고 있다.

Ⅲ. KDC 한국음악분야 전개의 변천

KDC에 있어서 한국음악 분야의 분류는 1964년의 초판부터 현재의 제5판(2009)에 이르기까지 670 음악내에서 하나의 마지막 목, 즉 679로 분류되어왔다. 이것은 일본십진분류법(NDC)이 그들

자신의 음악인 邦樂을 제1판(1929)부터 최근의 신정9판(1995)에 이르기까지 760 음악 내의 하나의 목인 768로 전개해온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KDC는 우리의 표준분류법으로서 대부분의 분류전개에서 한국·아시아 중심으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둔 것과는 달리, 한국음악은 마지막 목인 679에 배정되어 있다.

KDC 초판부터 제4판(1996)까지의 분류기호 679는 國樂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총 52항목으로 단 몇개의 주기추가, 문장고침 및 용어변경 외에는 전혀 변함이 없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제2판에서만 제1차 분류항목 모두에 영어를 병행하고 있다. 제4판에 이르기까지 거의 주요한 변경이 없던 '679 國樂'은 제5판(2009)에서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분류항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4판까지의 '679 國樂'과 제5판의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의 제1차 분류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KDC 초판-제4판과 제5판의 분류기호 679의 1차분류전개

초판 - 제4판	제5판
679 國樂 Korean music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679.1 국악이론 및 기법	679.1 국악이론(악전(樂典))
.3 성악	.2 정악
.4 창극	.3 민속악
.5 제주악	.4 창작국악
.7 현악기	.6 타악기
.8 취주악기	.7 현악기
.89 타악기	.8 관악기(전 취주악기)
	.9 동양전통음악

KDC 제4판까지의 '679 國樂'의 분류전개는 <표 3>에서와 같이 국악을 이론, 성악 및 창극부문에 각각 하나씩의 요목을 배정한 반면, 기악부문에 3개의 요목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악분야의 전체적인 구성은 실천위주 특히 연주·기악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특히 악기의 한 부류인 타악기가 1차분류에 공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79.8 취주악기 내에서 679.89로 분류되어 있어 악기의 배열이 불균형하다. 또한 한국음악의 학문적 입장에서 볼때 주요한 한국음악학·작곡·종교음악 등이 전개되지 않았다.

한국음악 분야의 1차분류는 <표 3>에서와 같이 초판-제4판까지는 총 6개 항목을, 제5판에서는 8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5판에서는 679.9에 동양전통음악을 배정함으로써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목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5판 679의 한국음악의 분류전개는 한국음악을 8개의 요목으로 구분, 이론·정악·민속악·창극·창작국악부문에 각각 하나씩의 요목을 배정한 반면, 기악부문에 역시 3개의 요목을 배정하여 여전히 연주·기악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류기호 679의 각 세목에 따른 제2·3차분류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9 國樂(제5판: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에서의 제2차 분류는 초판부터 제5판까지 679.07 지도법 및 연구법, 679.09 국악사만이 전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기호로 남아있다. 이 중 679.07은 제3판까지의 '연구 및 지도'가 '지도법 및 연구법'으로 용어변경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679.09 국악사에서 참조주기 '한국음악사 → 679.911'은 국악사와 한국음악사의 차이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679.9 음악사, 평론'에는 어떠한 주기사항도 없으며 음악사와 평론을 함께 다루고 있어 혼선이 야기된다.

679.1 국악이론 및 기법(제5판: 국악이론)에서의 분류전개는 초판에서 제5판까지 용어변경외에는 동일한 것으로 제4판까지는 679.12 악전 외에 모두 공기호이다. 그러나 제5판에서는 679.12 악전이 기보법으로 변경되고, 679.11 율(律), 679.13 악조(樂調), 679.14 변조(變調), 679.15 농현(弄絃), 679.16 장단(長短), 679.17 형식과 종지형 6개가 추가 전개되었다.

679.2 정악(제5판)은 제4판까지는 공기호로,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전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기호이다. 그리고 이 중 679.23 의식음악은 679.231 종묘제례악, 679.232 문묘제례악, 679.233 경모궁제례악, 679.234 기타로 전개되어 있다.

679.3 성악(제5판: 민속악)에서의 분류전개는 제4판까지 변동없이 6개의 세목, 즉 679.31 가창법, 679.32 歌, 679.33 詞, 679.34 詩, 679.35 民謠·風謠(제3판까지는 風謠(民謠)), 679.39 기타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5판에서는 민속악으로 변경되어 4개의 세목 즉,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으로 전개되어 있다.

679.4 창극은 초판에서 제5판까지 동일한다. 그러나 세목의 2차분류에 있어서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679.41 西道歌謠, 679.43 南道歌謠로 전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기호이다. 제4판에서는 679.41 西道歌謠는 西道唱으로 679.43 南道歌謠는 南道唱으로 용어변경만이 이루어졌으며 포함 주기사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제5판에서는 제2차 분류전개가 전혀 없이 주기사항, 즉 포함주기와 타분류지시주기만 있다.

679.5 제주악(제5판: 창작국악)은 초판에서 제4판까지에서만 전개되고 제5판에서는 창작국악으로의 완전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초판에서 제4판까지의 679.5 제주악은 5개의 2차세목, 즉 679.51 대례악(교묘악), 679.52 주송아악, 679.53 성명악·증문고취악, 679.54 요악(군악), 679.59 기타 속악·향악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 679.54는 제3판까지는 단소·요악(군악)으로 제4판에서 약간의 용어변경이 있었고 참조주기가 추가되었으며, 679.59 역시 제4판에서 포함주기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제5판에서의 679.5 창작국악은 4개의 2차세목, 즉 679.51 성악, 679.52 기악, 679.53 종교음악, 679.59 북한(창작)음악이 전개되었다. 이 중 679.51 성악과 679.52 기악은 679.21과 679.22, 679.31과 679.32와 조기성을 가지며, 679.53 종교음악은 679.23 및 679.33과 관련성이 있다.

679.6 타악기는 제4판까지 공기호였던 것이 제5판에 전개된 것으로, 제4판까지의 679.8 취주악기 내의 679.89 타악기로 분류되던 것을 제1차 분류로 앞세워 다른 악기류와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초판에서 제4판까지의 679.6 타악기는 9개의 2차세목, 즉 679.891 중, 679.892 순·징, 679.893 요·

탁·영, 679.894 라(나), 679.895 편경·특경, 679.896 고(鼓), 679.897 도(鼗), 679.898 백·축·어, 679.899 기타 악기의 악기별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제5판에서는 완전한 변경으로 재전개 되었다. 즉, 타악기를 2개의 악기종류로 구분하여 679.61 유율악기, 679.62 무율악기를 전개하고 있다.

679.7 현악기는 초판부터 제5판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2차세목에 있어서는 초판부터 제4판까지는 현악기의 각 악기별로 분류기호를 전개하는 반면, 제5판에서는 현악기를 3개의 악기종류별로 구분하여 재전개하였다.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679.7 현악기는 9개의 2차세목, 즉 679.71 금·슬, 679.72 현금, 679.73 가야금, 679.74 향비파·당비파, 679.75 아쟁, 679.76 대쟁, 679.77 월금, 679.78 해금, 679.79 와궁후·견궁후·수궁후의 악기별로 전개되었다. 제5판에서의 679.7 현악기는 3개의 악기종류별, 즉 679.71 활현악기(궁현악기), 679.72 발현악기, 679.73 타현악기로 전개하였다.

679.8 취주악기(제5판: 관악기)는 제5판에서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관악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 부전개 역시 재전개하였다.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679.8 취주악기는 타악기로 전개했던 679.89를 제외한 8개의 2차분류, 즉 679.81 나팔, 679.82 대금·중금·소금, 679.83 당적, 679.84 향필물·당필물·세필물, 679.85 동소·단소, 679.86 약·적, 679.87 지·소·태평소, 679.88 생황의 악기별로 그리고 기타 악기를 679.889에 전개하였다. 제5판에서의 용어변경에 따른 679.8 관악기는 2개의 악기종류, 즉 679.81 가로로 부는 악기, 679.82 세로로 부는 악기로 구분하여, 이 중 679.81 가로로 부는 악기는 그 밑에 주기로 해당악기들을 나열하고 있다. 반면에 679.82 세로로 부는 악기는 다시 종류에 따라 3개 즉, 679.821 홀서악기, 679.822 겹서악기, 679.823 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로 구분하고 있다.

IV. KDC5 679 한국음악 분류의 분석

KDC5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은 제4판까지의 '679 국악'에서 항목명이 변경된 것이며 이와 함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KDC5는 특히 679.9에 '동양전통음악'을 전개하여 한국음악에 관련된 분류항목은 8개의 세목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분류기호 679 중 동양전통음악을 제외한 한국음악분야 분류전개의 분석을 통해 본 분류전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세목의 1차분류 분석

분류기호 '670 음악'의 맨 마지막 요목으로 분류된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은 이전판에서의 용어변경과 동시에 마지막 세목에 '동양전통음악'을 함께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변경은 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에서 오늘날 세계음악으로서의 우리 민족음악으로 폭넓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영문표기에 있어서 KDC4의 '국악 Korean music'이 KDC5

에서 ‘한국음악 Korean traditional music’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께 전개한 동양전통음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DC5의 ‘679 한국음악’은 <표 4>에서와 같이 8개의 세목, 즉 국악이론·정악·민속악·창극·창작국악에 각각 하나의 세목과 기악분류에 타악기·현악기·관악기의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음악 역시 음악분야(670)와 같이 연주중심, 특히 기악중심의 분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주요 부문인 작곡과 한국음악학이 도외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분류는 세목 3자리수, 즉 3차 분류까지 전개하고 있다. 679.9를 제외한 679 한국음악의 총 항목수는 제4판의 것보다 18개 항목이 많은 총 70개이다. 또한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위치 재배치수가 43개 항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679.8 관악기에서는 19개의 재배치수가 전개되어 있다.

<표 4> KDC5 670 음악과 679 한국음악의 분류전개

670 음악 Music	679 한국음악 Korean traditional music
671 음악이론 및 기법	· 1 국악이론 (악전 樂典)
672 종교음악	· 2 정악
673 성악	· 3 민속악
674 극음악, 오페라	· 4 창극
675 기악합주	· 5 창작국악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 6 타악기
677 현악기	· 7 현악기
678 관악기 (취주악기)	· 8 관악기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679 한국음악의 분류전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0 음악과 5개의 세목에서 조기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671 음악이론 및 기법과 679.1 국악이론, 674 극음악, 오페라와 679.4 창극,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와 679.6 타악기, 677 현악기와 679.7 현악기, 678 관악기와 679.8 관악기이다. 이것은 세계음악 속의 한국음악을 고려한 듯하나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의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본 세목의 특징 중 하나는 679.5에 창작국악을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679의 분류전개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기표에 대한 사용이 전무하다. KDC의 조기표 중 특히 한국지역구분표와 한국시대구분표는 우리의 각 향토(지역)음악 및 시대별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류기호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에서는 설명주로 ‘악보는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가 있다.

11) 오늘날 대학의 학과명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문헌과 논문에서 아직까지도 이들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670 음악에서는 음악자료 중 악보에 대해 '670.88 악보'라는 항목이 배정되어 있고, 또한 설명주로 '한 특수음악이나 악기만을 위한 악보는 그 음악이나 악기에 분류한다'가 있다. 모든 음악 자료는 다른 주제분야와 달리 문헌 외에 악보·녹음자료·영상자료·전자자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은 음악에서 주요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들 모든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전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KDC는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나라·동양중심의 분류법이다. 따라서 각 주제 분류 및 조기표 전개에 있어서 한국관련 주제는 가장 상위에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있다.¹²⁾ 특히 KDC5에서는 그 특징으로 한국음악분야의 재전개 및 한국학 관련분야의 재정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음악인 한국음악은 제4판까지의 것과 같이 분류기호 679에 배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표준분류표 및 조기성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된다 할 수 있다.

2. 세목의 2·3차분류 분석

KDC5 679 한국음악분야의 2·3차세목의 배열체계는 본 1차세목에 따라 구성된 국악이론(679.1), 국악의 체계인 정악과 민속악(679.2-.3), 창극(679.4), 창작국악(679.5), 한국기악(679.6-.8)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 앞서 679 한국음악 일반의 전개상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KDC5 한국음악 일반(679)의 2·3차 세목전개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 07	지도법 및 연구법
· 072	국악연구소, 국립국악원
· 078	연주회
· 09	국악사 한국음악사 → 670.911

한국음악 일반(679)은 <표 5>에서와 같이 2차 세목에서 2개 항목, 즉 지도법 및 연구법(679.07)과 국악사(679.09)만을 전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기호이다. 이들은 본 분류표의 표준구분표 및 음악일반의 전개와 조기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구분표 중 -07과 -09 2개 항목만을 전제한 것이다. 이 중 679.07 지도법 및 연구법만이 2개 항목을 전개, 총 4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670.9 국악사는 679 한국음악 일반의 국악사(679.09)로서 항목명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특히 679.09 국

12) KDC5에서 한국철학은 151, 한국헌법은 362.11, 한국요리는 594.51, 한국언어는 710, 한국문학은 810, 한국역사는 911, 지역구분표에서의 대한민국은 -11, 국어구분표에서의 한국어는 -1 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악사에는 참조주 ‘한국음악사 → 670.911’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사와 한국음악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이나 이에 대한 구분이 설명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분류기호 ‘670.9 음악사, 평론’에는 지역구분표 사용에 대한 지시가 없어 한국음악사에 670.911을 적용하는데에 문제점이 따른다.

KDC5에서 한국음악의 이론부문을 전개한 유일한 세목인 국악이론(679.1)은 <표 6>에 전개된 바와 같이 율(679.11), 기보법(679.12), 악조(679.13), 변조(679.14), 농현(679.15), 장단(679.16), 형식과 종지형(679.17) 총 7개 항목으로 2차세목까지만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판에 비하여 6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671 음악이론 및 기법의 세목과는 무관하다. 679.1의 항목명 국악이론은 679 한국음악의 이론부문을 다룬 것으로 한국음악이론이 아닌 국악이론으로 되어있어 앞서 언급한 679.09 국악사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표 6> KDC5 국악이론(679.1)의 2차세목전개

679.1 국악이론 (악전 樂典)	
· 11	율(律)
· 12	기보법
· 13	악조(樂調)
· 14	변조(變調)
· 15	농현(弄絃)
· 16	장단(長短)
· 17	형식과 종지형

한국음악이론이란 한국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적인 연구 및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음악 학이라 불리운다. 우리의 한국음악학은 그동안 전통음악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견지의 통시적 관점과 전승된 전통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공시적 관점에서 오늘날까지 성장하여 왔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류전개는 한국음악학 및 이에 따른 각 영역 및 분과학에 관한 항목이 전무하다. 따라서 본 세목은 세계음악학으로서의 한국음악학 및 이들의 각 분과학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6>에 전개된 항목들은 적합한 분과학에 재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정악(679.2)과 민속악(679.3)은 『增補文獻備考』에서 언급한 국악(한국음악)의 체계를 구분한 것으로 <표 7>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정악은 궁정이나 지식계급에서 쓰이던 음악으로, 아악·당악·향악으로 구분하는 궁정음악과 사대부 계층의 풍류방음악을 말한다.¹⁴⁾ 반면에 민속악은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유행하던 음악으로, 민간에서 연주되던 전문가와 비전문가 음악 모두를 말한다. 정악과 민속악은 <표 7>에 전개된 바와 같이 우선 성악(679.21과 679.31)과 기악(679.22와 679.32)으

13) 한경신, 전계논문, p.13.

14) 장혜원, 전계논문, p.13.

로 분류기호의 조기성을 갖고 구분한 후, 각 특징에 따라 정악에서는 의식음악(679.23)을 민속악에서는 불교음악(679.33)과 무속음악(679.34)을 전개하고 있다.

〈표 7〉 KDC5 정악과 민속악(679.2-.3)의 2·3차 세목전개

679.2 정악	679.3 민속악	
. 21 성악	. 31 성악	679.32 기악
. 22 기악	. 311 민요	. 321 산조
. 23 의식음악	. 312 판소리	. 322 시나위
. 231 종묘제례악	. 313 잡가	. 323 봉장취
. 232 문묘제례악	. 314 병창	. 324 삼현육각
. 233 경묘공제례악	. 315 단가, 고법	. 325 취타
. 234 기타	. 316 시창, 송서	. 326 농악(풍물놀이)
	. 317 광대소리	. 33 불교음악
		. 34 무속음악

정악과 민속악의 2차 세목 중 성악(679.21과 679.31)과 기악(679.22와 679.32)에서 민속악에서는 3차 세목을 전개한 반면, 정악에서는 포함주만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정악에서의 의식음악(679.23)은 3차 세목을 전개한 반면, 민속악에서의 불교음악(679.33)은 ‘범패, 화청, 회심곡, 염불 및 기타음악’ 그리고 무속음악(679.34)은 ‘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음악’의 항목명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기호 매김의 기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중 불교음악은 별도로 종교음악(672)에서의 672.2 불교음악과 불교(220)에서의 227.7 찬불가로도 전개되어 있으며, 679.53 종교음악과만이 조기성을 갖고 있다.

한편, 『增補文獻備考』의 국악의 체계에서는 먼저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한 후, 정악은 다시 아악·당악·향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전의 『高麗史 樂志』와 『樂學軌範』 권6·7·8 역시 국악을 아악·당악·속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악 중 아악이란 궁정의식에 연주되던 음악으로 본 분류표에서는 의식음악(679.23)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당악과 향악에 대한 항목이 없다. 따라서 이들과 연관된 항목을 주거나 괄호 등을 통해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KDC5의 색인에서 향악이 679.59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4판의 것이며 KDC5의 679.59는 북한(창작)음악이다.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창극(679.4)은 어떠한 2차 세목도 없이 ‘춘향전(가), 수궁가, 심청전(가), 흥부전(가), 적벽가, 구극(舊劇), 국극을 포함한다’는 포함주와 ‘판소리로서의 다섯마당은 679.312에 분류한다’는 타분류지시주만으로 되어 있다. 창극은 창(唱)을 기본으로 극적인 대화가 구성되어 연출되는 우리 고유의 음악극으로 넓은 의미로는 판소리를 포함하기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된다. 따라서 본 분류표에서의 창극은 판소리와 구분하여 판소리에 대한 타분류지시주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항목은 포함주의 창극에 대한 내용이 2차 세목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어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하겠다.

창작국악(679.5)은 새롭게 전개된 것으로 KDC5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특징 중 하나이며, '현대적 기법이 도입된 한국음악을 분류한다. 예 : 퓨전음악'이란 설명주기가 있다. 창작국악은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작국악이란 항목명 역시 679 한국음악의 세목으로 앞서 언급한 670.09 국악사와 679.1 국악이론과 함께 한국음악과 국악이 항목명에 혼용됨으로써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창작국악의 분류전개는 <표 8>에 전개된 바와 같이 4개의 2차 세목, 즉 성악(679.51), 기악(679.52), 종교음악(679.53), 북한(창작)음악(679.59)으로 전개 되어 있다. 이 중 성악과 기악은 정악과 민속악에서의 성악(679.21과 679.31)과 기악(679.22와 679.32) 그리고 종교음악은 민속악에서의 불교음악(679.33)과 조기성을 갖고 있다. 이 중 종교음악(679.53)은 별도로 음악(670)에서의 672 종교음악과 종교(200)에서의 227.7 찬불가 및 237.7 찬송가가 전개되어 있다. 또한 북한(창작)음악의 배정은 미래의 한국음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명칭 역시 창작국악의 2차 세목으로 볼 때 북한(창작)국악이 되어야 할 것이나, 창작국악(679.5)과 항목명에서 같은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한국음악·국악과 함께 북한(창작)음악의 항목명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된다.

<표 8> 창작국악(679.5)의 2·3차 세목전개

679.5 창작국악	
. 51 성악	679.52 기악
. 511 창작판소리	. 521 사물놀이
. 512 독창	. 522 독주
. 513 중창	. 523 중주
. 514 제창	. 524 합주
. 515 합창	. 525 협주(곡)
. 516 성악과 관현악	. 526 관현악
. 517 성악과 실내악	. 53 종교음악
	. 59 북한(창작)음악

또한 성악(679.51)은 7개, 기악(679.52)은 6개의 3차 세목까지 어느 정도의 조기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있다. 이들은 독창 및 독주(679.512와 679.522), 중창 및 중주(679.513과 679.523), 제창 및 합주(679.514와 679.524), 합창 및 협주(679.515와 679.525), 성악과 관현악 및 관현악(679.516과 679.526) 이다. 그러나 본 창작음악의 전개 중 679.511 창작판소리는 판소리(679.312)와의 조기성이 없어 분류기호 배정에 재조정이 요구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악부문은 악기의 종류에 따라 3개의 세목, 즉 타악기(679.6), 현악기(679.7), 관악기(679.8)로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한국음악 악기를 타악기·현악기·관악기의 3개의 종류로 구분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3분법을 사용한 것이다. 본 기악부문의 3개 세목의 전개는 <표 9>와 같다.

<표 9> 기악부문(679.6-.8)의 2·3차 세목전개

679. 6 타악기	679. 7 현악기	679. 8 관악기
. 61 율악기	. 71 찰현악기(궁현악기)	. 81 가로로 부는 악기
. 62 무율악기	. 72 발현악기	. 82 세로로 부는 악기
	. 73 타현악기	. 821 홀서악기
		. 822 겹서악기
		. 823 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

본 기악부문의 분류전개는 <표 9>에 전개된 바와 같이 타악기(679.6)는 율악기(679.61)와 무율악기(679.62)로, 현악기(679.7)는 찰현악기(679.71)·발현악기(679.72)·타현악기(679.73)로, 관악기(679.8)는 가로로 부는 악기(679.81)와 세로로 부는 악기(679.82)로 각 악기의 종류에 따라 2차 세목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관악기 중 세로로 부는 악기만이 다시 그 종류에 따라 3차 세목, 즉 홀서악기(679.821)·겹서악기(679.822)·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679.823)로 전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악부문의 분류전개는 3분법에 의한 악기분류에 따라 3개 악기로 구분, 각 악기 내에서의 종류별로 세분한 후 각 해당악기는 분류기호 없이 포함주로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기악부문은 가장 많은 위치재배치주와 이전지시주가 있다.

한편, 670 음악에서의 기악부문을 살펴보면, 역시 3개의 악기, 즉 건반악기 및 타악기(676), 현악기(677), 관악기(678)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음악(679)의 기악부문과 조기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중 건반악기 및 타악기는 곧바로 각 해당악기에 따른 분류기호를 배정·전개하고 있으며, 현악기와 관악기는 그 종류에 따라 한국음악의 현악기(679.7) 및 관악기(679.8)와 유사하게 구분하였으나 역시 각 해당악기에 분류기호를 할당하고 있다. 현악기(677)는 찰현악기(677.2)와 발현악기(677.4)로, 관악기(678)는 금관악기(678.2)·목관악기(678.3)·서(리드)를 사용하는 목관악기(678.4)·홀서목관악기(678.5)·겹서목관악기(678.6)·서를 사용하지 않는 목관악기(678.7)로 먼저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한 후, 각 해당악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악기종류의 구분은 한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악기종류에서는 분류기호에 조기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의 각 악기종류별 해당 악기 역시 주기사항의 포함주가 아닌 분류기호를 부여해 줌으로써 각 악기별의 각종 음악자료를 분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민속악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 Hornbostel-Sachs 악기분류법은

모든 민속악기에 대해 4분류, 즉 현율립악기(chordophone) · 공기율립악기(aerophone) · 몸율립악기(idiophone) · 막율립악기(membranophone)로 구분하고 있으며, DDC나 RILM Abstracts에서의 악기 분류에 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KDC 역시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기악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악기분류법의 해당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V. KDC5 679 한국음악 분류의 개선방안

다음은 제Ⅳ장에서의 KDC5의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분석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류기호 679의 항목명 ‘한국음악’에 대한 분명한 의미 정의 및 용어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DC5의 679 ‘한국음악’은 ‘국악’과 모호하게 사용, 전개되어 있다. 분류기호 679는 제4판까지의 ‘국악’이 제5판에서 ‘한국음악’으로 용어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류기호 679의 세목에서 679.09 국악사, 679.1 국악이론, 679.5 창작국악은 한국음악이 아닌 국악으로 679.59 북한(창작)음악은 북한(창작)국악이 아닌 북한(창작)음악으로 되어 있어 ‘한국음악’과 ‘국악’이 혼용되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영문표기에서는 제4판까지는 ‘국악 Korean music’으로, 제5판에서는 ‘한국음악 Korean traditional music’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외된 ‘679.9 동양전통음악 Orient traditional music’에서의 2차 세목은 ‘679.92 중국전통음악’, ‘679.93 일본전통음악’ 등과 같이 각국의 전통음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명 문제는 우리의 고유음악에 대해 ‘한국음악’, ‘국악’, ‘한국전통음악’의 용어가 혼용되어 이해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항목명은 한국역사·한국철학·한국요리 등과의 일관성과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자리매김을 위해 ‘한국음악(국악)’으로 정하고, 세목에서의 모든 ‘국악’은 ‘한국음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679.9 동양전통음악’과 그 세목들 역시 동양음악·중국음악·일본음악 등으로의 변경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한국음악에 대한 분류기호 679의 배정은 우리의 표준분류표로서 다른 한국관련 주제와의 통일성 및 조기성면에서 가장 하위가 아닌 가장 상위로 재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KDC는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나라·동양 중심의 분류법이다. 따라서 각 주제분류 및 조기표 전개에 있어서 한국관련 항목에는 가장 상위에 그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KDC5는 한국음악분야의 재전개 및 한국학 관련분야의 재정리 등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음악인 한국음악은 초판부터 제5판까지 670 음악의 요목배열에 있어서 가장 하위기호인 679에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한국관련 주제들과의 통일성 및 조기성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표준분류표로서의 정체성면에서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한국음악에 대한 분류기호 배정은 다른 한국관련 주제들과 같

이 670음악에서 가장 상위요목인 671에 재전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각종 한국음악 관련자료를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는 시간예술이자 청각예술로 음악문헌을 비롯 악보·녹음자료·영상자료·각종 프로그램·팸플렛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자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이에 따른 내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전개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DDC·NDC 등 여러 분류표에서는 문헌중심의 분류를 전개하되 분류기호 앞에 문자나 숫자·기호를 덧붙이도록 하여 각 음악자료를 구분하도록 하는 옵션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KDC5에서는 '671.8 음악의 녹음'에서 포함주로서 '축음기, 오디오, 음반 등을 포함한다' 하여 한국음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의 녹음자료를 한 세목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79 한국음악'에서는 '악보는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는 악보에 대한 설명주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KDC 역시 다양한 유형의 음악 및 한국음악 자료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분표나 옵션 혹은 기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음악 중 그동안 발전해온 한국음악학과 이들의 제분야 및 분과학 그리고 작곡분야가 분류전개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KDC5의 한국음악 분류전개는 이전의 판들과 같이 이론보다는 실천·연주중심이며, 실천부분 중 악곡을 창작하는 작곡이 도외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음악의 전체적인 구성, 즉 세목의 전개는 지나치게 연주중심이다. 따라서 세계음악학으로서의 한국음악학과 이들의 3대 영역인 역사음악학·체계음악학·응용음악학 및 각 분과학 그리고 작곡분야가 전개됨으로써 한국음악의 균형있는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세목전개의 불균형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음악 679의 8개 세목 중 1개 세목(679.4)은 2차 세목전개가 전혀 없으며, 3개 세목(679.1, 679.6, 679.7)은 2차 세목까지, 4개 세목(679.2, 679.3, 679.5, 679.8)은 3차 세목까지 전개되어 세목전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679.4 창극은 2차 세목없이 포함주와 타분류지시주만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악부분(679.6-8)은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는 악기분류의 3분법, 즉 타악기·현악기·관악기로 구분, 각 악기종류에 따라 2차 세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관악기만이 다시 그 종류에 따라 3차 세목을 전개한 후, 모든 각 해당악기는 분류기호 없이 주기사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창극(679.4)과 기악부분(679.6-8)에 포함주로 전개된 내용을 세분전개함으로써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악기종류별 해당악기에 분류기호를 부여해줌으로써 각 악기별 각종 음악자료가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한국음악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기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79 한국음악의 분류에는 조기표의 사용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국음악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기표 중 표준구분표·한국지역구분표·한국시대구분표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지역구분표와 한국시대구분표는 우리의 각 향토(지역)음악 및 시대별음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분류기호 배정에 있어서 679 한국음악 내에서 뿐만 아니라 670 음악과의 조기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679의 분류기호 배정은 어느정도 조기성이 충족되어 있으나 몇몇 부분에서 재조정이 요구된다. 679.3 민속악에서의 679.312 판소리와 679.5 창작국악에서의 679.511 창작판소리의 조기성 문제이다. 또한 679 음악과의 조기성에 있어서 671와 679.1, 674와 679.4, 676과 679.6, 677과 679.7, 678과 679.8에서 조기성을 갖고 있으나, 그 세분전개에서는 전혀 조기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서양 음악 및 기악과의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조기성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음악(679)의 각 항목명에 영어와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항목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바르게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DC5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한글 표기이다. 따라서 679 1개 항목만이 영어를, 소수의 몇 개 항목만이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679 한국음악의 분류항목에는 한자 없이 한글용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명이 많이 있다. 또한 우리의 한국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영어 및 로마자화한 항목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KDC5의 한글표기에 대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의 모든 항목에 그리고 900 역사의 많은 부분에 영어항목을, 140 경학, 150 동양철학사상의 많은 항목에 한자항목을 병기한 것과 같이 679 한국음악의 항목명 역시 영어와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색인에서의 누락과 오류를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상관색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DC5의 색인에는 679 한국음악의 총 항목수 70개 중 19개가 제외되었다. 이는 특히 KDC5에서 새로이 전개된 679.5 창작국악의 2·3차 세목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반면에 이중표목 및 포함주기의 항목 중 대다수가 색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색인의 분류기호에 대한 오류가 10개 발견된다. 이 중 2개 기호는 본표에 없는 것이며, 1개 항목명은 항목명에서 오류가 있다.¹⁵⁾ 그리고 특히 한국음악의 경우 전통악기명이 많아 색인에서도 한자의 병기사용이 불가피하다 사료된다. 더불어 DDC와 같은 색인항목배열의 인덴션 문제도 고려함으로써 상관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KDC5는 미래의 자료분류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국판 표기를 비롯 이전판의 불합리한 부분 조정, 조기성기호 조정, 중국·일본의 고유명사 원음표기 등의 기준하에 공개공청회와 실무자

15) KDC5의 색인에서 분류기호의 오류항목은 국악원/국립, 가곡(한국음악), 취타, 춘향가(판소리), 당음(한국음악), 범패(한국음악), 완함, 홀서, 겹서, 약/취주악기(국악)이고, 이 중 본표에 없는 기호는 국악원/국립(679.06)과 범패(679.331)이며, 항목명의 오류는 완함(阮咸)이 완암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의 의견수렴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예술부문 중 음악 및 한국음악의 개정을 위해서는 각 전문가들의 자문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음악 분야의 재전개 및 한국학 관련분야의 재정리 등은 KDC5의 특징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음악 분야를 대상으로 초판부터 제5판까지의 전개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한국음악(679) 분류전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기호 679의 항목명 '한국음악'과 하위세목의 항목명 '국악'에 대한 용어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음악에 대한 분류기호 679는 다른 한국관련 주제와의 통일성 및 조기성 면에서 가장 상위세목으로 재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 활발한 한국음악의 활동 및 연구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한국음악 관련 자료를 융통성있게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류전개에 있어서 그동안 발전해온 한국음악학과 이들의 제분야 및 분과학 그리고 작곡분야를 수용함으로써 균형 있는 한국음악 분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 세목전개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음악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기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분류기호 배정에 있어서 679 한국음악 내에서 뿐만 아니라 670 음악과의 조기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음악의 각 항목명에 한자와 영어를 병기함으로써 항목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색인에서의 누락과 오류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관색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편.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서울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김상진, 이창수. "음악분야 인터넷자원의 장르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경북대학교), 제15집(2003), pp.135-183.
- 김연경 편역. (제22판) Dewey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세분전개표. 서울 : 금문서적, 2004.
- 김연경 편역. (제23판) 듀이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세분전개표. 서울 : 글로벌콘텐츠, 2012.
-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전통음악개론. 서울 : 어울림, 1995.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악학궤범.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1.
- 박진선. 음악문헌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7.
- 송방송. "한국음악학의 성장과정과 당면과제."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pp.145-172.
- 송방송.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시론." 민족문화논총, 제5집(1983), pp.167-183.
- 송방송. 한국음악학서설.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9.

- 송혜진. 한국악기. 서울 : 열화당, 2001.
-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5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9.
-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 장혜원. KDC 4판 『국악 679』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정옥경. “KDC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3호(2010. 9), pp.109-122.
-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6), pp.5-34.
-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9. 3), pp.31-6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한국음악사전. 서울 : 대한민국 예술원, 1985.
- 홍정수. “음악학.” 음악과 민족, 제3호(1992), pp.274-289.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